

히브리서 4:14-16

- 히3:18-4:1,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 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 히브리서의 저자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우리도 이스라엘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이르기 위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 히8:1,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 히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3.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도리 즉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 히5:1-3,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싸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 우리의 큰 대제사장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 히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련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5.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 히2:14-18,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불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련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련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 히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6.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7.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교제나뉘주십니까? 우리는 예배와 성찬에서 그 복된 현실을 누리고 있습니까?